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77 | 2025 MAY | 05 월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 신명기 10:19 -

칼럼

- 부자와 거지 사사로

국내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

-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긴급구호: 미얀마 대지진

- 미얀마 교회에 피어난 부활의 소망

현장스토리

- 달콤한 성공: 중앙아시아의
소액대출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박해와 선교현장 - 수단

Heart To Heart

- 사진으로 보는 '2025년 WWL 인천지역 순회 발표'

- WWL 대구/대전/광주 지역 순회 발표

- 한국오픈도어 위클리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OpenDoors
이웃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5년 05월호 | 통권 277호 |

등록번호-증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업)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조남준, 임훈희,

민태홍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섯별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목차

- 03 칼럼 - 부자와 거지 나사로
- 05 국내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
-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 09 긴급구호: 미얀마 대지진
- 미얀마 교회에 피어난 부활의 소망
- 12 현장스토리
- 달콤한 성공: 중앙아시아의 소액대출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 15 박해와 선교현장 - 수단
- 22 Heart To Heart
- 사진으로 보는 '2025년 WWL 인천지역 순회 발표'
- WWL 대구/대전/광주 지역 순회 발표
- 한국오픈도어 위클리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눅 16:19-31)

최홍규목사 (국제오픈도어 이사)

히브리대학의 사회학자인 유발하라리가 쓴 “호모데우스 (Homo Deus)”라는 책 서문에서 그는 말하기를 20세기 이전까지 세계인의 관심사는 가난, 질병,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행복, 불멸, 신성이 세계인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생활을 보면 과거 어른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엔 아끼고 모으고 저축해서 미래의 소망을 이루려고 발버둥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휴가나 여가를 위해서는 직장도 쉽게 포기하고, 비록 월세를 살아도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결국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생활의 순서와 가치를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Ray kuzweil의 “특이점이 온다”는 책에서 인류는 2045년 이후쯤 되면 인간의 수명이 150-200살 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I-brain이란 것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고, Nano-Robot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유전자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Bio-Technology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장기를 복제하고 Human-Program을 통해서 기억을 조작할 수 있고, Drug-Music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은 영생할 길이 생기고 시는 신적위치에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네델란드, 미국, 호주, 중국등이 이런 것에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 종교가 사라지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AI와 데이터교와 알고리즘교만이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종교도 아무의미 없는 시대가 될 것을 경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해야하고 천국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비유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나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 하다가 죽어서 음부(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부자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헌데를 개가 와서 핏아먹을 정도로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천국)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는 왜 천국에 갔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 갈수 없는데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 부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치,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고 부유하고, 누구보다 종교에 열심이였지만, 그들의 삶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게다가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고발하여 죽일 생각만 하였습 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다 고 그들에게 경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 중에도 호의호식하며 신앙도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매이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의미없는 신앙 생활 하면서도 스스로 믿음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3:1에 사데교회를 향해 너희는 살았다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고 하셨고 3:17에는 라오디게아교회를 향해 너희는 부자라하나 곤고한것과 가련한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왜? 일까요 그가 무슨 선한일이라도 많이 했던가요?

거지나사로는 당시 갈릴리의 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자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개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도 거의 갈릴리 중심이었습니다, 게다가 부활 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천국에 들어 갈 것이라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지만 아무것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자의 복음이라 하고, 누가는 역시 가난한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녘땅이나 핍박받는 많은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고 가진 것이 없어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이 속히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들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비유중에 이름을 거론한 비유는 거지나사로 한사람뿐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실제적 인물이고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시 그 대상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 사람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이지만 실제이고 천국과 지옥도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겐 이름이 없는 것은 아마도 실제 인물이 거론되면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서 예수님을 더 빨리 죽게 했을 것이므로 아직 십자가 지실 때가 이르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자란 뜻입니다. 대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뜻이 말하고 있는대로 그들의 인생과 운명도 그 뜻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가 바로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풀무불속에 던져지든지 두려워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이든 거지이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뿐만아니라 특히 어둡고, 춥고 힘들고 실패하고 병들고, 또한 핍박받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동자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있고 주님의 마음은 곳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눅17:26이하에는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여 이를 남기고 집을 짓고 하다가 멸망한 것과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그러합니다. 다만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세상에만 관심이 집중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지하에서, 땅속에서, 산속에서, 어둔 밤 골방에서, 바위틈에서, 눈발에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 애끓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음은 그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국내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얀마의 양 목사는 총과 폭탄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이동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전쟁이 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신자들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내전이 계속되면서 박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신자들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을 잃은 기독교인들에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숲속을 달릴 때 나뭇가지가 양 목사님의 옷과 팔을 할립니다. 아내는 앞서 달린다 뿌리에 걸려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린 뛰어야 해요. 가끔은 기어가야 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총을 쏘고 있으니까요. 안전한 곳을 찾아 일주일 내내 달릴 때도 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폭탄이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요."

숲 깊숙한 곳에서 양 목사*는 천막을 펼치고 가족은 그 아래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또다시 폭격할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하지만 여긴 물도, 음식도 없고, 아이들은 울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을 위한 두렵고 절박한 투쟁입니다. 하지만 양 목사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미얀마 내전이 심화되면서, 이 가족은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 할 때마다 반복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돈을 도둑맞고, 소지품은 빼앗기고, 교회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져요." 양 목사는 고백합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잔혹한 전쟁

미얀마에서 신자들은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왔지만, 2021년 쿠데타 이후 그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군대의 공습으로 기독교 공동체와 교회들이 파

괴되었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 4만 명의 기독교인이 쫓겨나거나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자들은 도망칠 때, 음식도, 쉼터나 안전을 보장하는 그 어떤 것도 없이 떠나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시험에 맞닥뜨립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교회는 약해지고, 그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얀마의 난민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잊히게 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린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너무 외로워요.” 양 목사는 슬픈 기색을 띄며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밖에 나가면 언제 어디서든 폭격과 총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요.”

끝없는 박해

양 목사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기로 했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그는 신혼의 청년 사역자였고,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다가와 시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심문은 양 목사와 아내에게는 무언가 달라 보였습니다. “우린 불안함을 느꼈고,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양 목사는 말했습니다.

“전 세계 신자들의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집을 떠난 후로 그들은 한 번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양 목사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지만, 교인들은 눈을 가린 채 총구 앞에 끌려갔고, 공동체는 흩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양 목사의 오토바이와 비상금(약 두 달치 월급)이 도난 당했습니다. 양 목사와 가족은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양 목사는 수년간의 혼란, 빈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지치고 소진된 상태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계속 이동해야 한다는 부담이 너무 커요.” 양 목



집을 떠난 신자들의 믿음은 그 어느때보다도 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들에게 지원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총성과 폭탄 소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린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죠. 장 보러 잠깐 나갈 때조차, ‘하나님,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18만 명의 기독교인, 난민이 되다

오픈도어는 전 세계적으로 18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폭력적 박해로 인해 집을 잃었거나 숨어 지내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이 위기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인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박해에 굴하지 않으며, 공동체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 오픈도어는 긴급 구호, 리더십 훈련, 의료 및 법률 지원과 같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후원은 양 목사와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잊히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양 목사는 말합니다. “절망과 희망 없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해요.”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죠.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힘을 얻어요.”

지낼 곳을 잃고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겠어요?

후원해 주세요

20,000원으로 국내 실향민 기독교인에게 한 달 치 긴급 지원과 원조(실량, 식료품, 식수, 따뜻한 옷, 담요, 방수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0,000원으로 청년 기독교인들을 위한 제자훈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50,000원으로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안전한 거처 제공과 같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신다면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선교회로 연락해주세요.

한국오픈도어 자동이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실향민



[자동이체 신청하기]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계좌입금

한국오픈도어 계좌 입금 - 아시아 1005-901-884970(우리은행)

(입금 시 입금자명에 '실향민' 세 글자를 함께 넣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 양 목사의 놀라운 인내와 믿음에 감사드리며, 그와 가족의 인내와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미얀마의 약 4만 명의 난민 신자들이 음식, 거처,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폭력과 박해로 인해 전 세계에서 집을 잃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 고린도후서 4:9 -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미얀마의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박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교회들은 공격받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분쟁은 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흩어진 신자들은 지치고,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박해받는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위협에 처한 기독교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얀마의 군부와 극단적인 불교 단체들은 이번 위기를 기독교 공동체를 겨냥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Chin) 주에서 400채의 가옥과 5개의 교회가 파괴되었고, 까야(Kayah) 주에서는 청년 16명이 산 채로 불태워졌습니다.

신자들이 캠프나 밀림으로 도망칠 때, 그들은 극도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미얀마의 숲속에서는 여성들이 출산 중에 목숨을 잃기도 했고, 목회자들은 투옥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원조에서도 항상 마지막 순위로 밀려납니다.

이 절박한 상황은 여러분의 긴급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친 (Chinn) 주에 있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문 목사**를 위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까야 (Kayah) 주에서 여러 차례 쫓겨난 **모에 모에**를 위해. "도망다니는 삶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군 복무에 소집되었지만 현재 숨어 지내고 있는 젊은 기독교인 **덴**을 위해.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사람들에게 알려져 직장 and 집을 잃은 **메이 메이**를 위해. 그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긴급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긴급구호: 미얀마 대지진

미얀마 교회에 피어난 부활의 소망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서

4월 20일 주일, 수십억의 성도들이 부활절을 기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예수 부활하셨네!”라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폐허와 공포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달 미얀마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미얀마에 있는 교회 신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오픈 도어 현지 사역자들은 피해를 입은 성도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홀로 버려져 잊혀진 존재가 아닌 사실을 되뇌이며 오늘도 다가가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긴급히 요청됩니다.

이번 재해로 현재 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4,7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아직 잔해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구호와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많은 국제기구들이 피해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무장 단체가 사가잉 지역 이재민 구호 물품을 강제로 압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대가 구호품을 전달하던 중국 호송대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이 와중에도 내전의 한 방편으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기독교 인이 주로 거주하는 남부 친주와 사가잉 지역에서 군부의 폭격으로 최소 30명이 사망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현지 성도는 “사망자 중 기독교 목사와 노인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친주의 한 마을에는 교회와 여러 채의 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절박한 상황과 아픔은 부활절의 기쁨과 어울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 부활절의 희망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문에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들은 박해 받는 신자들을 돕기 위해 이미 현지에 있었습니다. 찾아 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즉시 행동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인 민 나잉*은 최근 배포를 마친 후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80가구에 쌀, 식수, 모기장 등을 지원했습니다. 태양광 램프가 도착하면 곧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현지 자원봉사자 아웅* 형제와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매우 반가워했고 우리의 방문에 감사했습니다. 아웅은 교회 신자들의 복구 작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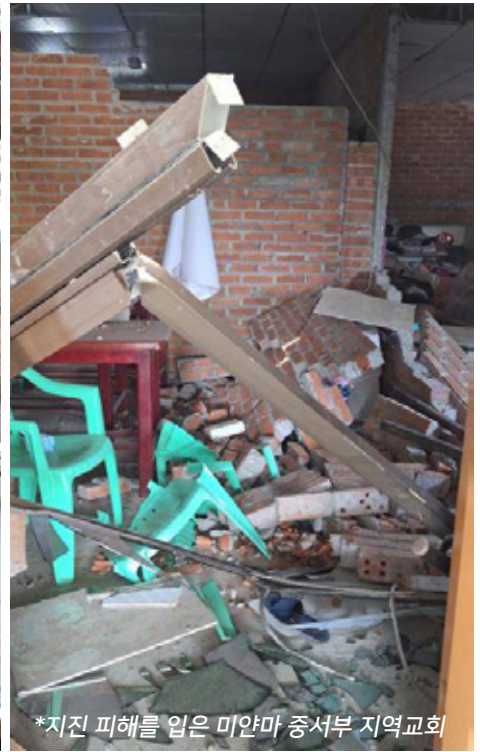
지진 이후 몸이 좋지 않아 태아의 건강을 염려하던 린*과 남편 노아* 목사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과 기도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의사가 제 아이는 안전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끊임없는 필요, 그리고 지속적인 희망

지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데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밍 나잉*은 "군이 구호를 방해하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모든 구호는 군을 거쳐야 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구 호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들었던 신자들도 있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군에 의해 구호품 반입이 막힌 사례도 몇 건 있습니다."

현지 신자인 메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구호 기관은 주 정부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양곤에서 만달레이까지 모든 구호 차량이 심문을 받고, 붙잡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지 파트너들이 구호품을 전달했지만 피해를 복구하는데 절대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미얀마 중부의 한 현지 교회를 방문한 조 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물 붕괴로 인해 이웃집 지붕이 파손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와 목사님 가족은 이제 교회와 이웃의 재산을 복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사용하기 위해 엔지니어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협력교회 아예* 사모님도 방문했습니다. 교회가 낡고 지진으로 인해 균열이 생겨서 긴급히 대피하고, 신자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창고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아예 사모님은 "음식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업체와 직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교인들의 생계가 걱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미얀마 중서부 지역교회

한편, 파손된 도로는 구호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폭우로 인해 천막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질병이 더욱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역자들은 실질적이고 목회적인 지원을 통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번 부활주일에 창고, 폐허 속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미얀마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나눠주세요.

오픈도어 현지 사역자들의 보고처럼, 실질적인 지원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대지진으로 인한 긴급한 필요를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살아 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나기 때문입니다.

단 20,000원의 후원금으로

미얀마 신자에게 한 달 동안 긴급한 지원과 구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오픈도어 자동이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긴급구호 미얀마



[자동이체 신청하기]

한국오픈도어 문의

전화: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901-884970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자명 뒤에 '미얀마' 세 글자를 함께 넣어 주세요.

현장스토리

달콤한 성공 SWEET SUCCESS

중앙아시아의 소액대출이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꿀맛 같은 만남

오픈도어 직원들은 중앙아시아의 아름다운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한 프로젝트를 방문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작업의 배후에 있는 영감을 주는 분, 에브게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분은 한때 알코올 중독자이자 도둑으로 여러 번 감옥을 들락거렸지만 지금은 성공적인 양봉가로 활동하는 전도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비좁은 차량에 다른 네 명과 함께 탄 오픈도어 직원들은 도시를 벗어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에브게니를 위해 갓 구운 빵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무성한 녹지와 바깥의 아름다운 경치가 잘 어우러졌습니다. 희미한 뿜뿜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직원들은 에브게니의 양봉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회색 수염을 기른 한 어르신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분이 다름 아닌 에브게니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분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서로를 소개하고 다정한 포옹을 나누고 나니 양봉업자인 이 분이 일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보호복이나 장갑 없이 망사가 달린 양봉 모자만 쓴 에브게니를 본 모든 사람들은 이 분이 이 일에 경험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러 나섰습니다. 일부는 가스통을 들고, 다른 일부는 에브게니를 돕기 위해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중앙아시아의 산 중턱이 이제는 일하느라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

이 분의 삶이 항상 이런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쁜 선택을 많이 했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이 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게니를 변화시키셨고, 사회가 외면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중앙아시아 교회를 강화하려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이 분은 이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는 이 분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 비즈니스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훈련에서

이 분은 양봉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픈도어는 모든 과정을 에브게니와 함께했습니다. 양봉장을 짓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교육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오픈도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양봉 사업은 매우 잘 되어서 5년 만에 대출금을 갚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15명이 넘는 직원과 함께 벌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브게니는 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의 지원으로 여성과 남성을 위한 두 개의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마약 중독자, 매춘부, 출소자, 노숙자를 위한 재활과 심터를 제공하기 위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브게니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분은 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에브게니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을 통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에브게니는 "몇몇 소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자, 거리에서 만난 새로운 소녀들에게도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라고 말합니다.

"이 분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이 분이 재정과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매우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라고 오픈도어 직원은 말했습니다.



WEEKLY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수단 (SUDAN)

기독교 박해지수

5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수단에서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2022년 11월 이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억압적인 법과 정책에서 벗어난다는 국제적인 인식과는 달리, 현지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암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군대는 쿠데타를 일으켜 연립정부의 민간 부분을 제거하고 총리를 해임했다. 쿠데타 이전에도 수단 정부는 이미 과거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였다. 2022년 8월에는 '공동체 치안'이라는 명목으로 간접적으로 '도덕 정책'을 재도입했다. 또한 기독교인 박해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전 알-바시르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군대에 의해 권력을 되찾았다.

둘째, 알바시르 정권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기독교인 박해에 대한 발언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과 아프리카계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극단주의 단체들의 지속적인 존재와 국제 사회의 지원 부족은 그들이 직면한 위협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셋째, 잔자위드 민병대는 여전히 활동 중이며, 전반적인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 4월 신속지원군(RSF)과 수단 군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졌다. 이로 인해 많은 사망자, 이재민, 파괴가 발생했다. 교회들이 점거되고 공격을 받아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내부 충돌로 인해 수단은 더욱 깊은 위기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내러티브와 수단의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 간의 큰 괴리를 보여주며, 개혁에 대한 약속이 위협과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허하게 들리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150개 이상의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되었다.

수단 (SUDAN)

국가 정보

지도자 : 압둘 파타 알-부르한 장군
(또는 압둘 라흐만 알-부르한으로도 알려짐)

인구 : 49,358,000 명

기독교인 수 : 2,028,000 명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2,028,000	4.1
무슬림	45,501,000	92.2
민족 종교	1,299,000	2.6
불가지론자	448,000	0.9

출처²

수단의 기독교인들은 특히 2021년 10월 쿠데타 이후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제 사회는 긍정

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자들과 아프리카계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와 끊임 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군대는 권력을 장악하며 민간 주도의 과도 정부를 사실상 해체하고, 기독교인 박해로 악명 높은 알-바시르 정권의 인사들을 재임명했다. 더욱이 2022년 8월 정부가 '공동체 치안'이라는 명목으로 도덕 정책을 은밀히 재도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수단의 복잡한 역사는 다르푸르 위기, 2011년 남수단의 분리, 누바 사람들의 고난 등으로 특징지어지며, 종교적 및 민족적 갈등으로 깊이 분열된 나라가 되었다.

¹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² 정보출처: Zurlo G A and Johnson T M,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y 2024

인구의 대다수가 무슬림인 수단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어려운 환경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카르툼과 같은 도시에 콥트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가 잘 확립되어 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 및 다양한 개신교 교단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특히 심각한 박해를 당하며, 정부와 지역 지도자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키우거나 기독교 장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자제한다.

2021년 10월 군사 쿠데타는 지속적인 시위와 불안을 초래했으며, 이는 2023년 4월 신속지원군(RSF)과 수단 군대 간의 폭력적인 충돌로 절정에 달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광범위한 사망자, 이재민 및 파괴를 초래했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는 보고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표적이 되며 점거되고 기독교인들이 공격당했다.

잔자위드 민병대와 기타 급진 단체들에 의해 교회가 점거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은 박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다. 이 상황은 개혁에 대한 약속과 현지에서의 위협 및 폭력 증가 간의 큰 괴리를 보여준다. 수단의 기독교인들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며, 진보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제 사회의 낙관적인 약속과 민주적 통치를 목표로 한 과도 정부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수단은 위기와 심각한 억압 상태로 되돌아갔으며, 특히 소수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퇴보는 어떠한 진전도 약화시키며 수단에 대한 국제적 내러티브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압박과 폭력은 항상 수도 외곽 지역에서 더 심했다. 일상 생활에서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괴롭힘과 위협 외에도, 무력 충돌로 인해 다르푸르, 누바 산맥, 블루 나일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해외 거주 기독교인 공동체들

해외 거주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은 주로 서방 국가들과 남수단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그들의 교회는 등록을 거부당하고 많은 경우 철거에 직면했다. 일부 해외 기독교인들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및 구금되고 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콥트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역사적인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억압과 독재적인 편집증으로 인해 침해를 겪고 있다. 전 대통령 알-바시르는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교회들을 포함한 교회 철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 그룹은 주로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심한 압력과 폭력을 겪고 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수단의 침례교, 복음주의 및 오순절 교단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의 억압과 독재적인 편집증의 형태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이 그룹은 또한 대부분의 교회가 폐쇄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원인

이슬람 억압

1989년 쿠데타로 알바시르 대통령이 지도자로 임명된 이후, 무슬림 형제단의 이념은 수단 정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 정권은 이후 나라 내 다른 종교 단체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슬람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다. 이 정권은 급진 이슬람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하는 등), 테러를 후원하며 무기를 밀매한 혐의를 받았다.

독재적 편집증

수단은 60년이 넘는 독립 이후로 민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남부와의 독립 분쟁이 마침내 종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푸르 위기와 친정부 및 반정부 민병대 간의 다극적 내전은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 정부 지도자들은 하르툼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서방적 선동적 수사를 사용했다. 이는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서방의 대리인으로 간주하면서 반기독교 폭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알바시르 대통령 하의 수단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며, 부족 민병대 동원도 포함되었다. 이들 민병대 중 다수는 인권 침해를 저질렀고, 분쟁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비아랍인을 인신매매하기도 했다. 기독교인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고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져, 이러한 이슬람주의 단체들에 의해 특히 잔혹하게 공격을 받았다.

민족 종교적 적대감과 부족 억압의 결합

수단 인구는 주로 북부의 아랍계와 남부의 아프리카계 등 약 19개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랍계는 독립 이후 이슬람과 아랍 우월주의 및 민족주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여성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2020년에는 배교법이 폐지되고, 여성들이 남성 친척의 허가 없이 여행할 수 있으며, 여성 성기 절제(FGM)가 금지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COVID-19와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가정 내 폭력, 특히 신체적 및 성적 폭력, 강제 결혼이 증가했다. 여성 기독교인들, 특히 개종한 여성들은 여전히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강간, 신체적 폭력, 강제 결혼 및 가정 폭력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사건을 신고하는 것도 여전히 어렵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상속권 또는 재산 거부
- 종교적 의상 강제 착용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구금(가택 연금)
- 폭력 - 신체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폭력적인 이슬람 무장 활동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이는 박해 증가로 이어졌다. 수단 정부는 남성 기독교인들을 '테러리즘'을 포함한 다양한 심각한 허위 혐의로 겨냥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빈번한 타겟이 되며, 정부 보안 요원들은 그들의 활동을 매일 감시한다. 기독교 남성과 소년들, 특히 개종자들은 구타, 감금, 살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강제 이주에 취약하다. 개종자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으며, 박해의 압박으로 인해 집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비즈니스/직업/업무 접근에 의한 경제적 괴롭힘
- 허위 혐의
- 마을/국가를 떠나라고 강요
- 정부에 의한 감금
- 폭력 - 사망 / 신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 점수
2025	5	90
2024	8	87
2023	10	83
2022	13	79
2021	13	79

수단의 점수는 WWL 2024에서 3점 증가한 90점을 기록했으며, 이전 해에는 이미 4점 상승했다. 이 증가는 주로 폭력의 확산 때문으로, 폭력 점수는 WWL 2024의 13.3점에서 16.1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평균 압박 점수도 약간 상승하여 14.8점을 기록했다. 2023년 군대와 신속지원군(RSF) 간에 발생한 폭력 사태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과 그들의 예배 장소 점거로 이어져 교회 출석이 점점 더 어렵고 위험해졌다. 내전은 또한 다른 폭력 단체들이 기독교인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2023년 12월:** RSF는 수단의 와드 마단(Wad Madani)에 있는 콥트 정교회 수도원을 공격하고 군사 기지로 변환했다. 이 공격 이후로 RSF 군인들이 수도원 주민들을 괴롭힌 영상을 공개하면서 최소 5명의 사제와 5명의 신학대학생들이 실종되었다.
- **2024년 1월:** 신속 지원군(RSF)이 수단의 와드 마단(Wad Madani)에 위치한 복음주의 교회를 방화했다. 이 교회는 제즈이라 주에서 가장 큰 종교 시설 중 하나였으며, 1939년에 지어졌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강제로 자신의 국가를 떠나야 하는 기독교인	교회나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또는 폐쇄	살해당하는 기독교인	국내에서 강제 이주된 기독교인
2024	1000*	182	44	1000*
2023	10*	100*	5	100*

이 표에는 보고 기간 동안 신앙에 기반한 폭력의 일부 범주만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결과는 해당 국가의 WWL 박해 역학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사건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해야 한다.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상징적인 수치(10, 100 또는 1000)가 제공되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10,000, 100,000* 및 1,000,000*과 같은 상징적인 숫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들은 안전을 위해 지역 사회와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피한다. 이는 정부의 체포나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지역 사회와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에 의해 강화된다. 성경과 같은 기독교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특히 무슬림 가족 내 개종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자료가 발견되면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돌아가도록 심각한 압력을 받게 된다. 저항할 경우, 재산을 잃거나 지역 사회에서 추방당하거나 추가적인 폭력 행위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가족 영역

수단에서 기독교 가정을 양육하는 것은 정부, 지역 사회 및 시민 폭력의 압박으로 인해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사회적 규범에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이 무슬림과 결혼하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독교 어린이들은 가족의 신앙 때문에 종종 괴롭힘을 당하며, 개종자가 기독교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동체 영역

수단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공동체의 압력은 엄청나다. 정부의 엄격한 이슬람 법 해석에 기반한 공공 질서 법이 하르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부적절한 의상'과 다른 '명예, 평판 및 공공 도덕의 범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구실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체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깨끗한 음용수와 같은 공동체 자원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도시 외곽 지역에서 더욱 그렇다. 사회와 정부의 일반적인 태도는 수단 시민이 무슬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독교인들이 공동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격하시키고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 누바 산맥과 남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정부 군대의 공중 폭격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민병대는 기독교인을 찾기 위해 가택 수색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영역

기독교인들, 특히 남수단 출신과 서구 선교사들은 정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자주 감시를 받는다. 과도 정부가 이 변화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는 큰 희망을 주고 있다. 국가 기관에 비판적이거나 그들의 작업이 전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제약과 금지가 발생한다. 많은 국제 비정부기구(NGOs)는 기독교 단체로 알려진 경우, 수단에서 금지된다.

교회 영역

수단에서는 교회가 당국과 사회 전반으로부터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 수단 당국자들은 종교 지도자 선출에 지속적으로 간섭한다. 기독교인들은 당국과 폭도들에 의해 교회를 짓고 유지하는 데 방해받는다. 정부의 동의 없이 수리를 시도하면 기독교인들이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 여러 공격이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되어 폭동, 폭격 및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교회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일어났다. 이러한 폭력은 외딴 지역에서 더 흔하다. 수단의 인프라로 인해 이러한 지역에 지원과 국제 관찰자를 보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처벌 없이 폭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수단은 다음의 국제 조약에 따라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3. 아동 권리 협약(CRC)

수단은 정기적으로 기독교인의 다음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아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 교회 건물이 공격받고 불에 탄다 (ICCPR 제18조)
-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바지를 입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으로 기소될 수 있다 (ICCPR 제19조)
- 기독교인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주 괴롭힘을 당한다 (CRC 제14조 및 ICCPR 제18조)

수단의 다른 종교 소수자들의 상황

수니파 이슬람 외의 모든 종교 단체는 신앙을 실천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오픈도어의 수단 사역

오픈도어의 수단에 대한 비전은 다음을 통해 박해에 굴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회복력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 박해 대비 프로그램
- 제자도 향상
- 경제적 권한 부여 촉진



Heart To Heart

사진으로 보는 '2025년 WWL 인천지역 순회 발표'

2025년 WWL 인천 지역설명회가 지난 3월 27일(목) 저녁 6시 30분에 인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예그린교회(고용진 목사)에서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공언하고 실천하기 가장 힘든 국가들의 순위를 발표하며 박해받는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나누었으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장기후원자님께 감사하는 순서도 진행되었으며 전세계 박해동향, 어린이 박해지도 및 오픈도어 기도용사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WWL 인천 지역설명회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샘튼교회 문민환 목사님, 장소대여를 비롯한 식사제공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예그린교회와 고용진 목사님 및 귀한 시간 내시어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WWL 대구 / 대전 / 광주지역 순회 발표에 초대합니다

내용: 1) 전세계 박해동향
2) 어린이 박해지도
3) 오픈도어 기도용사

대구

일시: 5월 29일(목)
오전10:30
장소: 예수그이름교회
(류성호 담임목사)
주소: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57길 39
Tel: 053-962-7991

대전

일시: 6월 17일(화)
오전10:30
장소: 늘사랑교회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로82
Tel: 042-861-5200

광주

일시: 7월 17일(목)
오전10:30
장소: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담임목사)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80번길 58-6
Tel: 062-655-1225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 5일 ☐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